

한·일 연쇄접촉 ... 관계 개선 '봄바람' 부나

서울·도쿄서 국장급 이상 외교채널 가동 미국도 오바마 순방 앞두고 중재 본격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중단됐던 한일 외교당국간 고위급 교류가 사실상 재개되면서 최악의 한일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양국은 도쿄와 서울에서 국장급 이상의 외교채널을 연쇄 가동했다.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예상보다 빨리 한일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강력히 부인하긴 했지만 일본에서는 핵안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현재 태도를 볼 때 관계 개선 문제에 당장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당장 일본 정부는 22일 지방정부 주최로 열리는 이른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키로 한 상태다.

3월 말에는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4월에는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제사), 4~5월에는 외교청서 발표, 7~8월에는 방위백서 발표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 일정이 줄줄

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이하라 국장의 방한 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는 일본과 만나 진지하게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일본이 다시 과거사 도발을 한다면 만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일본과 만나 관계 개선을 논의할 때는 왜 그렇게 하지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베 신사 참배 후 첫 국장급 접촉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면담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로 들어오고 있다. 한일관계를 실무적으로 책임진 양측 당국자가 만나는 것은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특히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해법이 집중 모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도발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킨 일본이 먼저 진정성 있는 조치로 이를 결사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 입장을 일부라도 반영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양국관 관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일 양국의 외교채널 연쇄가동은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 압박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하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를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의 중재 외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월 한·일 순방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움직임에 한일 양국이 호응하는

"FTA 발효땀 호주산 농축산물 수출 73% ↑"

호주 외교통상부 분석

한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향후 15년간 쇠고기를 포함한 호주산 농축산물의 대(對)한국 수출이 73%나 급증할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호주 외교통상부가 독립적 연구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호 FTA가 2015년부터 발효될 경우 2030년까지 15년동안 호주산 농축산물의 대한 수출은 73%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호주의 최대 수출품인 광물자원의 대한 수출은 17%가 늘 것으로 전망됐으며 전체적인 대한 수출은 25%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 말 기준 호주의 대한민국 수출액은 216억 호주달러(약 20조7000억원)였으며, 수입액은 103억 호주달러(약 9조 8000억원)로, 호주 입장에서 보면 수출이 수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한국 입장에서 호주는 일본과 더불어 만성적인 무역 역조국으로, 1965년 양국간 무역수지 집계 시작 이래 지난해까지 49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호주는 한-호 FTA가 발효될 경우 호주가 얻는 이익이 한국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관위, 전교조 광주지부 선거 개입의혹 조사

전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선거 후보로 추대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들은 전교조에 대한 항의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교육단체들은 전교조를 고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교조 광주지부의 교육감 선거 후보 추대 결정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다.

전날 윤봉근 전 시의회 의장이 "전교조가 교육감 선거 후보에 개입해 장휘국 교육감을

추대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일반 단체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전교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성격이 다른 단체이므로 조사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전교조가 집행위 결정을 통해 장 교육감을 후보로 추대하기로 한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한승원 칼럼

무너져가는 썩은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여 서울로 진격했지만, 광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의 기총소사로 인해 참혹하게 패한 그 갑오년(1894년)으로부터 120년이 지난, 지금은 2014년의 갑오년이다.

나는 한 해 전에, '겨울잠 불꿈'이라는 소설을 통해 동학 민중 봉기를 이끌었던 전봉준이 일본군에게 붙잡혀 처육적으로 끌려가 서울에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이야기를 서술한 바 있다.

청일전쟁과 동학 농민군들을 전멸시킨 일본군을 막후에서 지휘한 것은 당시 일본국의 실세인 이토 히로부미였다. 훗날 안중근 의사에게 죽임을 당한 이토 히로부미는 유사 이래 한국을 괴롭혀 온 일본 정한(征韓) 세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인물이다.

2014년을 맞은 일본은 바야흐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독도를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한관 전쟁을 치르려는 꿈을 꾸고 있

오래전부터 그들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서 판결을 받고 때를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콧방귀만 뀌고 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를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독도를 군사력으로 빼앗은 다음 국제사법재판소로 그 문제를 끌고 들어갈지도 모른다. 아베 총리는 그러한 꿈을 쓰기 위해 권력을 잡은 이후 졸군 전쟁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고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망한 다음, 미국과의 약속에 따라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 범죄자들을 처형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는 조항을 헌법에 넣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쟁을 치러 간단히 독도를 손아귀에 넣고 싶지만 그 헌법 조항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 전쟁범죄자들의 흔적을 야스쿠니 신사에 모셨고, 해마다 그 전쟁 원흉들

갑오년에 갑오년을 생각한다

<2014년>

<1894년>

음에 틀림없다. 독도를 넘보는 일본 우파, 그들의 앞잡이인 아베 총리의 간악한 마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것은 신라 때부터 한반도의 동해안과 남해의 섬들을 노략질하곤 한 일본 해적들에게서 비롯된다. 더욱 본격적인 만행은 430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과 정유왜란이었다.

그리고 120년 전 갑오년에 중국과의 전쟁을 치르고, 패정을 바로잡자고 죽창을 들고 일어난 조선 민중들을 기관총으로 썩살이하다시피 사살한 데 이어 36년 동안의 식민지배 강제 통치를 하였다.

또한 1941년에 그들이 일으킨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일본의 전쟁광들은 그것을 대동아 공영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미화했다)에서 패하고, 대한민국이 독립한 뒤, 이제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빼앗으려 한다.

일본은 이제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 다음이다.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독도에 경찰력을 투입해 지키고 있지만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들의 강함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하여 독도를 빼앗을 수 있다.

의 흔적 앞에 머리 숙여 기도를 한다. 신사 참배를 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 어떤 서약을 할까.

인류에게 패악을 끼친 그들을 대신하여 참회하고, 다시는 당신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서약하겠다는, 아니면, "잠시만 더 기다려 달라,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당신들이 이루지 못한 대동아 제패의 꿈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약하겠는가.

한국을 정벌하는 것이 꿈인 일본의 보수 정한 세력들은 참회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36년 동안의 식민 지배를, 미개한 조선 땅에 근대문명을 도입하고 개화시킨 것이라고 우기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한국의 처녀들을 위한 부로 끌고 가서 집중처벌 유린한 악행을 두고서도 "어느 나라 전쟁에서든지 성매매 위안부는 있었다"며 역사를 쓴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해방 이후 "일본 놈 일어난다, 미국 놈 믿지 마라"란 말이 나왔었다. 미국이 거대해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것을 기화로 지금 일본은 야만적인 준동을 획책하고 있다. <소설가>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특가기획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입지

일택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 / 76.42㎡
2층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 (≈179.43평)
3층	전문의원 안과·이비인후과 치과·피부성형과 1164.9㎡ (≈352.38평)
4층	사무실 / 학원 365.58㎡ / 216.87㎡ / 582.45㎡
5층	아스터리학원 유투엠수학학원 임대확정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전속물건 - 공동중개환영

公告
利川徐氏 尚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尚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 등록되었습니다

단비플라워

축화원3단 근조화원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